

Wacker, 폴리머 절연체 세미나 개최

Wacker Korea와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2008년 9월4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전기 절연 기술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에는 Wacker Korea, 한국전력공사, 평일, 한국전기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참석은 대부분 전선 등 전기 분야 전문기업들로 이루어 졌다.

발표주제는 송전용 폴리머 애자(Polymer Insulator), 송배전 절연물, 철도 분야 절연물, 폴리머 피뢰기 등의 절연체적 우수성 실험 결과에 모아졌으며 참석자들도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폴리머 절연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Wacker Chemical의 Jens Lambrecht 실리콘 연구 책임자 및 한국전기연구원의 심대섭 박사, 조한구 박사 등 연구 개발자들이 대거 참석해 세세한 분야에 걸친 질의가 오고가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애자는 송전선 등에서 전기를 절연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구로 전기 절연성이나 야외에서의 내후성과 기계적인 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주로 세라믹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구공산권 등지에서 일부 유리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북미·중동 등을 중심으로 경량 폴리머 애자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현 기자>

<화학저널 2008/09/08>